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4월 25일(금)  
--(음력 3월 28일)--  
Пятница  
25 апреля 2025 г.  
№ 16 (1213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25일 사할린에서 제6회 국제 로봇공학 챔피언대회 "사할린 6.0"이 열린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도착한 참가자 기념사진 촬영중.

(사할린 주정부 제공)

## 단신

### 푸틴 대통령, 징집 결정 1년 유효 법안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병역 징집 결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병역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당해 징집 계획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바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은 최대 1년간 유지된다. 건강 재검진 없이 추가 징집이 가능해져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푸틴 대통령의 3월 명령에 따라 4월 1일~7월 15일 동안 18~30세 청년 16만 명이 징집된다. 이는 2011년 가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 주지사, 오하 주민들과 소통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지난 22일 오하 구역을 방문해 새 주택 공사장, 도로 보수공사장, 사할린국립대 오하 분교 등을 점검한 후 두 시간 동안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만남에서는 오하~하바롭스크 노선에 추가 항공편 운영, 위스토츠니 마을 보건소에 신규 의료인 배치 문제, 의료서비스 문제, 스포츠시설 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일부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리에서 즉시 해결되었다.

### 사할린주, '게오르기 리본' 행사 개최

사할린주는 전국적인 5월 9일 승리의 날을 맞아 전통적인 '게오르기 리본'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 24일부터 2주간 주민들에게 7만 개의 리본을 배부할 예정이며, 200여 명의 '승리 자원봉사자'들이 사할린의 여러 도시 주요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리본을 나눌 예정이다.

게오르기 리본은 러시아 전역의 국민들이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다. 리본은 정장, 코트 또는 재킷의 왼쪽 가슴(심장 가까이)에 부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 사할린주, 도로 보수 공사 진행

사할린주 자치체들이 본격적인 도로 보수 시즌을 맞아 도로포장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4월 18일 마감된 봄철 도로 점검 결과, 주 내에서 2,341개 손상 구간(37,000㎡ 이상)이 확인됐으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긴급 복구를 지시했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흄스크·코르사코브에서는 이미 웅덩이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공사는 사할린 섬의 남부지역은 6월 1일까지, 나머지 자치체들은 7월 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주정부회의에서 리마렌코 주지사는 '질이 낮은 공사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4월 26일 - 사할린주 깃발의 날 기념

### 존경하는 사할린 및 쿠릴 열도 주민 여러분!

사할린주 깃발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형상화한 청록색 깃발은 우리의 단결과 고향에 대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 깃발은 이 땅의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닦아 주신 선조들과의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곧 우리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인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1945년의 사건은 세계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적 경계를 가진 우리 사할린주 형성의 서곡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할린 섬 지역의 깃발 아래에서 선조들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산을 존중하며,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어떤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고자 합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이 지역의 번영을 위해 섬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책임감, 애국심은 이 지역을 앞으로 이끌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섬 지역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 새로운 승리를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 "사할린 6.0" 로봇공학 챔피언대회, 25일 개막

#### 전국·해외 2000여명 참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도로 진행되는 국가 프로젝트 "청소년과 어린이"의 일환으로 4월 25~27일 3일간 사할린에서 제6회 국제 로봇공학 챔피언대회 "사할린 6.0"이 열린다. 러시아 50개 지역과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에서 2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 12개 부문에서 경쟁한다. 사할린 주 정부는 대회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할린주 정부 총재이자 대회 조직 위원장인 알렉세이 벨리크는 "로봇공학은 우리의 미래"라며, "사할린 청소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내 "성장의 거점"과 "퀀토리움"어린이 기술파크가 로봇공학 교육의 핵심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할린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됐으며, 특히 크라스노야르스크 주 팀은 국제 대회 경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할린은 국제 로봇공학대회는 처음으로 개최한다.

본 대회의 주요 행사장은 "푸시스트" 간이비행장이며 농업·농산업 분야의 첨단 로봇 기술이 선보일 예정이다. "미래의 엔지니어" 연구소 소장 막심 투루셰브는 "4세부터 21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며, 우승자는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은 "사할린 지역은 2020년부터 로봇 챔피언십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55,000명의 학생이 로봇공학에 참여 중이며, 그중 2,000명이 사할린 학생들"이라고 전했다.

에너지·금속 그룹 "엔+"가 3년 연속 로봇공학대회의 메인 스폰서로 나서 1,000만 루블리의 상금을 지원한다. 우승 팀에게는 국제 대회 참가권과 고성능 장비(노트북, 3D 프린터 등)를 수여한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는 "이 대회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를 격려했다.

(본사 기자)

새고려신문

###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 한인들에게 음악을 선물한 전두한 선생

얼마 전 신문사 책장에서 우연히 악보장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전두한 씨가 만든 독습용 아코디언 교본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직접 손으로 쓴 머리말이 있었다. 이 글에는 한자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니 머리말이 완전한 한국어로 타자되어 있었다. 전두한 씨께서는 이 교본을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후에 고국에서 출판했다.

그는 베이스 버튼이 48개 이상 되는 아코디언을 배우는 초보자들을 위해 연습방법 즉, 악기연주에 대한 자세, 바탕통, 조작법, 우수(右手)/좌수(左手)의 운지법과 기타 아코디언 연습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노인들을 위해 흘러간 대중가요도 몇 곡 편곡하고, 유행가요, 음악, 클래식도 수록해 놓았다.

사실 1950-1990년대에는 사할린 한인사회계에서 전두한 선생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조선극장 악장, 사할린사범전문학교 음악선생, 그리고 아코디언 음악가로서 잘 알려져 있었다. 전두한 선생님을 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그의 아들 전동군(71세)씨를 찾았다.

전두한 씨는 강원도에서 1923년에 태어났고 1926년 부모를 따라 3살 즈음 사할린에 왔다. 그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조선, 일본 땅이었던 남사할린(가라후토)에는 조선사람들

에게 우리 말 교육을 금지시켜 일본 말만 하도록 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일본말만 하다 보니 1949년 당시에 아버지는 조선말을 못했어요»라고 전동군 씨가 말했다.

전두한 선생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해 아코디언도 독학으로 배웠다. 남사할린이 소련 땅이 되었을 때는 우글레고르스크(예수토루) 제지공장에서 전기기사로 일했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도 잘 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유즈노사할린스크로 가기로 결심했다. 1949년, 스물 여섯 살 때의 일이다. 우글레고르스크에서 씘없이 약140킬로미터를 걸어오다가 일린스크에 마을에 도착하자 어느 조선인의 집에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일본말로만 할 수 있었다. '자기가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 사람인데 모국어를 몰라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온 전두한 씨는 26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재능 있는 음악가로서 그는 '아리랑' 조선 악단(장기간 '조선 극장' 소속)에 입단하고 한때 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조선극장 공연과 악단 연주가 인기가 높아 동포 뿐만 아니라 사할린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다. 순회공연도 많이 했다고 한다.

어느 날 공연 후 조선인 내외가 음악가 전두한을 찾아와 "우리 말을 잘 하네요. 4년전에는 일본말만 해서 일본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라

고 말하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때 재워준 집주인이었던 것이다.

전동군 씨는 어릴 때 아버지의 공연을 자주 봤었다. 그때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을 지금도 놀라워 한다. "아버지는 '사할린의 봄'이란 유명한 곡을 작곡했으며, 북조선 공연 중 작곡한 오페레타 "조선의 딸"로 상도 받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전두한 선생은 항상 교육에 대한 의욕이 강했다.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성격이었다. 조선말도 배우고 사범전문학교에서 사범과 음악을 배우기도 했다.

"1960년 극장이 폐쇄된 후, 아버지는 25년간 사범전문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아버지가 아코디언은 물론 발랄라이카, 만돌린, 피아노까지 능숙하게 다루시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자가 엄청 많았지요."라고 전동군 씨가 계속 아버지께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전두한 선생은 사범전문학교 조선과에서도 만돌린, 발랄라이카 등 악기 연주를 가르쳤고 합창단도 지휘했다. 사범전문학교 제자들은 전두한 선생을 '공정하고 엄격한 선생님, 감자 수확 캠페인 때는 우리를 삼촌처럼 잘 챙겨준 분'이었다고 말한다.

은퇴 후에는 퇴직한 음악선생들로 밴드를 만들어 잔치에서 노래와 연주를 해 인기가 많았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전두한 선생은 표현력이



아주 좋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 덕에 아들은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많이 기억할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제자들을 챙겼던 일화다.

소련시대때 '감자 수확 거두기 협조'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는 교육기관 또는 업체들에서 농업집단을 돕는 것이었다. 그때 2,3주간 전문학교 학생들이 시골에 머물며 감자를 거두었는데, 대학과 전문학교마다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 사범전문학교 학생들은 주로 사할린 북부의 티몴스코에 마을 근처에 머물었는데 식사 준비도 스스로 해야 했다.

어느 날 여학생들이 '연송어 알 먹고 싶다'고 해서 전두한 선생과 체육선생이 생선을 잡아 알을 절이는데 갑자기 수산 감시원들이 나타났다. "체육 선생님은 깜짝 놀라 어둠속으로 "사라질" 정도로 높이 점프했고, 아버지는 너무 놀라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라고 전동군 씨는 회상했다. 다행히 이 사건은 '교사의 날'기념일에 일어나 별금으로(당시 벌이 엄격해)만 끝났고 연어알도 돌려주고 학생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단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께 너무 재미있게 들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아버지는 제게 단순한 아버지가 아닌 진정한 롤 모델이었습니다. 근면함, 배움에 대한 사랑, 음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음악가가 아닌 토목 엔지니어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라고 아들 전동군 씨는 말한다.

전두한 선생은 2005년 7월, 안산 고향 마을에서 돌아가셨다. 사할린한인문화에 기여를 한 그분을 이렇게 지면에서나마 추억하며 사할린 주민들의 기억에 오래 남기고 싶다.

(배순신 기자)  
(사진: 가족 사진첩에서)

## 이 모 저 모

### 사할린 선수, 전 러시아 요트대회에서 메달 2개 획득

사할린주의 7명의 선수가 전국 요트 대회 "봄의 출발"에 참가했다.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켈렌지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21개 지역에서 545명의 선수가 모였다.

사할린 선수들은 "레이저 4.7"과 "레이저 레이디얼" 클래스에 출전했다. 9년의 레이스를 치른 "레이저 레이디얼"부문에서 키릴 코스틴 선수는 "17세 이하 청소년부"에서 금메달을, "19세 이하 청소년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두 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사할린주요트연맹이 전했다.

### Сахалинец взял две медал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парусному спорту

Семь спортсменов представил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парусному спорту "Весенние старты". В Геленджике с 14 по 20 апреля собрались 545 спортсменов из 21 региона страны.

Сахалинцы выступали в классах "Лазер 4,7" и "Лазер Радиал". По итогам девяти гонок в классе "Лазер Радиал" Кирилл Костин победил в зачёте "Юноши до 17 лет" и стал бронзовым призёром в зачёте "Юноши до 19 лет",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парусного спорта.

### '아에로플로트', 승전 80주년 맞아 대조국 참전용사들에게 무료 항공권 제공

대조국 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아에로플로트'항공사는 '포베다' 저가항공사 항공편을 포함해 참전 용사를 위한 전통 캠페인을 시작, 무료 항공권을 제공한다. 항공사 홍보실은 무료 항공권은 5월 12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항공권은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에로플로트 자체 판매 사무소 대리점 및 지정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편도 항공권은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왕

복 항공편은 출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이번 기념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각 참전용사는 한 명의 동반자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아에로플로트 측은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등급 승객에게 체크인 시 좌석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참전용사 또는 장애인 참전용사인 '소련 영웅 칭호' 수여자와 '영광의 훈장' 모든 급 수훈자에게는 '컴포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 무료 항공편을 제공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전용사들은 '아에로플로트 그룹' 노선 네트워크 내 모든 도시를 비행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각 도시는 물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항공편 외에도, 참전용사들에게는 항공사로부터 특별 선물이 제공된다. 2인용 왕복 무료 항공권 증정서로, 러시아 내 및 CIS 국가들 간 '아에로플로트 그룹' 항공편을 2025년 6월 1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참전용사들을 위해 특별 전용 콜센터 라인이 운영된다.

### «Аэрофлот» подарит ветеранам ВОВ бесплатные перелеты к 80-летию Победы

В преддверии 80-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авиакомпания «Аэрофлот» запускает традиционную акцию для ветеранов, предлагая бесплатные авиабилеты, в том числе на рейсы лоукостера «Победа». Они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до 12 мая, сообщ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виакомпании.

Билеты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офисах собственных продаж,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Аэрофлота» и уполномоченных агентствах в период с 25 апреля по 12 мая 2025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Перелет в одну сторону можно совершить с 3 по 12 мая, а обратный рейс —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месяца с даты начала перевозки.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праздничной акции также может бесплатно перевезти одного сопровождающего. При наличии свободных мест «Аэрофлот» предложит всем категориям пассажиров, участвующим в акции, повы-

шение в классе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 регистрации. Для Геро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полных кавалеров ордена Славы, являющихся ветеранами или инвалидам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авиакомпания предоставит бесплатный перелет в классах Комфорт или Бизнес.

В рамках акции ветераны смогут совершить перелет между любыми пунктами внутри маршрутной сети Группы «Аэрофлот», а также между городами России и Азербайджаном, Арменией, Беларусью, Кыргызстаном, Казахстаном и Узбекистаном.

Помимо бесплатной перевозки, ветеранам предложат специальный подарок от авиакомпании — сертификат на два лица. Он дает право на бесплатный перелет в оба конца по России и в страны СНГ.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ертификатом можно будет на рейсах Группы «Аэрофлот» в период с 12 июня 2025 года по 30 апреля 2026 года.

Для ветеранов в течение акции доступна специально выделенная линия контакт-центра:

### 사할린 유치원생들, '어린 챔피언 릴레이'에서 승자 가려

사할린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5회 사할린주 스포르타키아드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GTO(러시아 신체능력 검증 프로그램) 요소가 포함된 릴레이 경기로, 주 내 7개 지역에서 온 12개 팀이 참가했다고 지역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네웰스크, 홈스크, 노글리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70명 이상의 어린 선수들은 최단 시간 내에 코스를 완주해야 했으며, 세 번의 멀리뛰기, 5회 팔굽혀펴기, 왕복 달리기, 목표물 공 던지기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우승 팀은 가장 빠른 기록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경기 결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제55호 유치원 '웨스누쉬카(Веснушка)'의 어린이들이 1위를 차지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9호 유치원 "알료누쉬카가 2위, 홈스크 제7호 유치원 "올림카"가 3위의 영예를 안았다.

모든 참가 어린이들은 기념 메달과 달콤한 선물을 받았다.

(8면에 계속)

## 사할린주, 재활센터 신관 개관

사할린주 전문 재활센터 신관이 문을 열었다. 이곳은 최대 60명의 환자가 동시에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특수군 사작전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의 재활도 지원할 예정이다. 알레리리마렌코 주지사는 며칠 전 이 시설을 돌아보았다.

새로 건립된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에는 중추 및 말초 신경계 장애, 근골격계 질환, 신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전문 부서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중환자실도 설치되어 호흡, 삼킴, 식사 등 기본 기능을 재활하는 치료를 제공할 것이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번 시설 확충으로 뇌졸중, 심장마비, 중상 및 관절 수술 후 환자들이 종합적인 재활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최신 장비와 전문 인력이 갖춰져 환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할린주 재활센터의 이웨타 자벨리나 원장은 재활 치료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1단계(조기 재활)는 중환자실이나 수술 직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 재활, 2단계(본격적 재활)는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집중 치료, 3단계(외래 재활)는 상태가 안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간 치료다.

자벨리나 원장은 "그동안 사할린에는 2단계 재활을 위한 전용 입원동이 없어 지역 병원의 소규모 재활실에서 치료를 진행해 왔다"며, "이제 60병상 규모의 전문 시설에서 24시간 맞춤형 재활이 가능해져 치료의 연속성과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절재건술 후 2단계 재활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신관 개소로 치료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의사 경력 25년의 김 알렉세이 외상과 과장이 덧붙였다.

새로운 입원동에는 최신 재활 장비가 완비되어 있으며, 30명 이상의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다. 현재 4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연내 정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행복한 모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시설에 산후조리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 중이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 사할린 옴부즈맨 크루트첸코, 2024년 업무 보고

사할린주 두마 의원들은 지난해 아나톨리 크루트첸코 인권옴부즈맨의 사회지원 보고서를 채택했다. 옴부즈맨은 2024년 411건의 항소를 접수했으며, 이 중 203건은 구두, 208건은 서면으로 접수되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분의 1 감소한 수치이다.

사회권 관련 항소 중 주거권 및 공공 서비스 문제(66.3%)에 대한 신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군 복무자 및 그 친족의 신청 비중은 20%에서 38.4%로 증가했다. 군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마

련, 의료 및 군 의료 위원회 활동, 휴가, 동원 해제 및 대체 복무, 참전 용사 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또한 실종된 가족의 운명을 확인하거나 포로로 잡힌 가족의 생활을 요청하기도 했다. 많은 경우, 전권위원회는 국가 당국과 협력하여 전사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섬 지역의 기술 재활 장비 제공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지적한다. 연방 사회 기금의 관리와 함께 기술 재활 장비 수령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그 결

과 사할린 장애인들의 불만 건수가 19배나 감소했다. 옴부즈맨은 또한 특정 계층의 시민에게 의약품이 제공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위원장과 그의 사무실은 올 한해에도 의약품과 기술적 재활 수단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사할린주 두마 예레나 카시아노와 의장은 두마를 대표해 아나톨리 크루트첸코 인권 옴부즈맨의 유익한 보고와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 사할린 작가 이정희, 고려인마을에서 삶을 말한다

"나는 잊힌 이들을 기록해왔습니다. 모국어로, 한 사람의 삶을 지워지지 않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이 지난 11일, 광산구 월곡동 흥범도 공원에서 '고려인 한글문학 기획전'과 '중앙아시아로 건너간 사할린 한인들 특별전'을 열었다. 개막식과 더불어 마련된 이야기 공연 무대에는 사할린 출신 한글 작가 이정희가 올라 자신의 삶과 문학을 풀어냈다.

이날 행사는 고려인 마을 주민과 국내외 방문객, 고려인 마을관광청 해설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고려인 어르신들로 구성된 아리랑 가무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개막식과 문화행사는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삶의 이야기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김병학 고려인문화관광청의 사회로 진행된 이야기 공연에서 이정희 작가는 사할린 출생 고려인 2세로서의 성장기부터 모국어 신문사 기자 생활, 문학 창작과 활동의 여정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그는 부모 세대의 사할린 이주 배경, 한국어로 익히게 된 계기, 사할린 한인 학교 시절의 기억을 전하며 "차별 속에서도 모국어를 놓지 않았던 것이 나를 지켜준 힘"이라고 말했다. 중앙아시아로의 유학과 이주, 기자로 일했던 당시의 경험도 생생히 전달했다.

이 작가는 고려인 신문사인 레닌기치(현 고려일보)를 통해 문학과 언론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1971년 단행본 '시월의 햇빛'에 여성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작품을 수록했고, 이후 30여 편의 단편소설과 희곡 '계월향'을 창작해 고려극장 무대에 올렸다. 특히 2002년 단편소설 '그날 밤'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해외한인문학대상을 수상, 2005년에는 독일 베를린 국제 문학예술 아카데미(모스크바 지부)로부터 '황금 왕관 훈장'을 받았다.

그는 "'그날 밤'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며 "그 안에 시대의 상처와 여성의 내면을 담아내고 싶었다. 지금도 그 울림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국어 신문사 기자로 일하며 느낀 보람과 고려인 2세대의 언어 계승 문제에 대해서

도 언급했다. 그는 "모국어는 단지 말이 아니라 정체성과 정신의 뿌리다. 그걸 놓치면 민족의 기억도 함께 지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어로의 영주 귀국 과정에서 겪은 정착의 어려움과 제도적 미비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겪는 문화적 소외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한국어로 글을 쓰며, 잊힌 이들의 삶을 기록해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인 마을 관계자는 "이정희 작가의 이야기는 고려인의 역사, 아픔, 꽃피듯한 삶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려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인문화관에서 진행 중인 '고려인 한글문학 기획전'과 '중앙아시아로 건너간 사할린 한인들 특별전'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아시아경제)

### 허진원의

#### <사랑하기 좋은 날>

## 가난한 사랑 노래 -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법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넘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걱정입니다만 먼저 다들 결혼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언론이며 학자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난리 범석이지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밀가루, 빵, 커피, 하물며 사과, 소고기, 우유 등이 모든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로 거듭났기 때문이겠지요. 이십 대 중반부터 결혼했던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는 이제 서른이 넘고, 중반, 마흔을 넘어도 쉽게 결혼을 하려고 맘먹지 않습니다. 취직 자리는 열 명 뽑던 기업이 이제 한 명 뽑는다는 통계입니다. 만약 일찌감치 결혼해서 아이 한 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 하나 낳아 키우는 기본 비용, 돈 3, 4억을 매워야 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며 이런 저런 걸 감안해 봐도, 허리띠 졸라매는 순간으로 다들 넘어간다는 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한국은 또한 타인지향적인 삶을 사는 걸로도 유명하지요. 자기 새끼 만큼은 남보다 꼴리게 키울 순 없으니,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겠지요. 최고의 교육을 투자해야 남보다 앞서갈 테니.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한다는 건, 제 눈에도 '바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지요. 국가는 서둘러 아이를 낳는 경우, 3천만원을 건네거나, 1억 가량의 혜택 카드를 쥐어주는 꼴입니다만, 이제 젊은이들은 속지 않습니다. 'YOLO'라는 단어를 3분에 한 번 꼴로 내뱉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혜택은 지뢰밭의 초콜릿일 뿐이겠지요. 늘 그렇듯이 젊은이들은 더 똑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그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권리가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신경림 시인의 시를 제발 정치인들이 필사를 해가며 서로 돌려 읽기를 꿈꿔봅니다. 이들이 서민들의 슬픈 눈망울을 짐작할 수 있는 시대가 과연 도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건 감히 바라지도 않는다고. 다만 젊은이들의 선택을 일단 존중부터 해 주자고. Let it be! 이게 맞다니까요. 내 싸 두면 다들 잘 할 거라구요. 러시아어로는 Пусть будет, 아닌가, 아무튼 Так тому и быть!



(서울에서 허진원)

##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美 애틀랜타서 "성황리 폐막"

### 4천 990만 달러 규모 대미 수출계약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의 수천만 달러 美 진출 투자계약, 우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도 이어져

미국 애틀랜타에서 4월 17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0일 폐회식과 환송오찬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매일경제·MBN, 중소기업중앙회,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나흘간 총 6억 6천만 달러(한화 약 9,900억 원 규모)에 달하

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K-푸드, K-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4,990만 달러(한화 약 740억 원 규모)의 현장 계약이 체결되어 한류 상품에 대한 미국 현지의 인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한류 인기로 힘입어 K-바이오, K-뷰티, K-푸드 등 분야에 특화해 기업전시회를 마련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대회에 참여한 뷰티 기업인 M사와 A사는 미주 한인 최대 소핑몰인 휴스핀윌드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등 관세장벽이 높아진 시점에서 대기업에 이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진출도 본격화됐다는 점도 이번 대회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행사 이튿날에는 국내 2개 기업(D사 및 H사)은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건축사와 각 2천 5백만 달러, 2천만 달러 규모의 현지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7면에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нкурс эссе к 75-лет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 ПАПА

Со Мен Су(Инчхон), 1 место

Он не был для меня отцом в классическом конфуцианском понимании, он был для меня папа — в смысле пап, па-па, пааа...

Звонок в дверь — это он пришел на обед, значит, был час дня. По нему можно было сверять часы. Снимал пиджак, шел в ванную, помыв руки, обедали, потом снова в ванную — почистить зубы, ложился на диван и спал. Ровно через 30 минут просыпался, как Штирлиц, быстро накидывал пиджак на белую сорочку и снова уходил на работу. И так было всегда в будние дни... Ни дождь, ни снег не могли помешать его распорядку.

Вечером приходил с работы — ужин, короткий отдых и снова за письменный стол, заставленный стопкой разлинованных квадратиками писчей бумаги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письма и толстыми словарями, продолжал работать, занимаясь переводом. Работал как одержимый, потому что любил это дело и посвятил этому всю жизнь!

По выходным дням иногда на двери ванной комнаты 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табличку: "Свет не включать, в ванную не входить!", и мы знали — папа проявляет фотопленку.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ли, когда он начнет печатать очередные фотографии. Как только слышали его голос: "Готово!", мы пулей проскальзывали в приоткрытую дверцу темной ванной, подсвеченную красным светом, и наблюдали за магией превращения чистого листа фотобумаги в эпизоды нашей жизни. Фотографировал много, поэтому у нас в +архиве есть фотографии с самого рождения меня и братишки.

Он ловко перебирал вязальными спицами — да, он вязал носки и как заправский портной сидел за швейной машинкой или с иголкой в руках... Все свои вещи приводил в порядок сам, никому не мог доверить ни погладить брюки, ни постирать рубашку. Подшить, заштопать — тоже все сам! И это, честно говоря, не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одежды, просто так папа с детства был приучен родителями к аккуратности, чистоте, бережливости.

До сих пор удивляюсь, как в одном человеке уместилось столько навыков и способностей. Пишу и вдруг вспоминаю: на плите стоит металлическая коробочка, а там шприцы в кипящей воде.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папа сегодня будет делать укол.

Когда и как он всему этому научился?

У папы было много друзей-однокашников по педучилищу. После закрытия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многие перешли работать в редакцию ме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а некоторые, получив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с ним нов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 кто стал врачом, кто инженером, кто историком. У меня всегда был вопрос, на который я так и не получил ответ: как он умудрился закончить именно истфак пединститута? Ведь корейцы в те времена считались неблагонадежной частью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а истфак — это же была кузница пропагандистов.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сооружался из снятых с петель межкомнатных дверей, а скамейки — из досок. Такой стол покрывался полиэтиленовой пленкой, скамейки — газетами и покрывалами. Все гости садились, и начинался пир — ели,

пили, в перерывах не забывая поднимать рюмку, говорить тост за именинника.

Г л а в н о е действие — это когда очередной певец (а петь должны были все без исключения: есть слух, нет слуха, есть голос, нет голоса — никого это не убеждало) должен был спеть песню — от песен Бернеса до Дё Ён Пиль и Нахуны, Миансаровой до И Мидя и Мисора Хибар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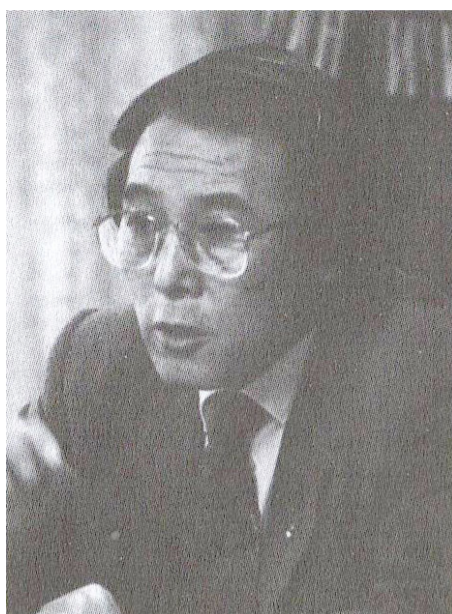
Когда подходила очередь папы, я украдкой из комнаты, где у детей было свое застолье, наблюдал за ним. Он не пел — он прожил песню: то жестикулировал руками, то закрывал глаза. У него был великолепный голос, а если при этом он еще сопровождал свое пение игрой на гитаре или на губной гармошке "Зингер", и когда все дружно в такт отбивали ритм палочками (кто по столу, кто по посуде)... мурашки по коже.

*По несчастью или к счастью, истина проста: никогда не возвращайся в прежние места. Даже если пепелище выглядит вполне, не найдешь того, что ищешь — ни тебе, ни мне. Путешествие обратно я бы запретил И прошу тебя как брата — душу не мутит, А не то рвану по следу, кто меня вернет, улечу как ветер в "семьдесят пятый" год, в "семьдесят пятую" угадаю там, где, боже мой — там, где мама молодая, где отец живой... нет, не отец — папа в смысле пап, па-па, пааа..."*

Стихи мною любимого Геннадия Шпаликова, пару строк измененных мной. С надеждой, что мне не прилетит за это. **12.04.2024**

От редакции:

Отец Со Мен Су - Со Ен Хван работал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нын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литсотрудником, ст.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с ноября 1964 г. по август 1975 г., в 1982 г. был приглашен на работу в редакцию газеты "Ленин кичи"(ныне "Корё ильбо", был ее гл.редактором с 1989 г. по 1994 г.



К 80-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 Живи на свете долго, ветеран

Уходят в небо наши ветераны,

Уходят тихо на закате дня

Лишь остаются как наследство раны,

Среди гвоздик у Вечного огня

Припев:

Живи на свете долго, ветеран

Наперекор всем тяготам земным,

Ведь без тебя для многих россиян

Твой День Победы станет чуть иным

Бросали вас безусыми бойцами

В кромешный ад, где плавилась броня

И тот, кто выжил, мысленно ночами,

Всё павших ждёт у Вечного огня

Припев:

Живи на свете долго, ветеран

Наперекор всем тяготам земным,

Ведь без тебя для многих россиян

Твой День Победы станет чуть иным

Стоит солдат под майскими лучами,

Войны лицо неженское храня

В своей груди и мирными руками

Нас единит у Вечного огня

Припев:

Живи на свете долго, ветеран

Наперекор всем тяготам земным,

Ведь без тебя для многих россиян

Твой День Победы станет чуть иным

ТЭХО ЧАН

14.05.2011,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В Сеуле обсуждают, какую резиденцию выберет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Сеул готовится к смен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и вместе с этим - к очередно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миграции". После импичмента Юн Сок Ёля и назначения досрочных выборов на 3 июня в повестке дня появился важный, пусть и внешне технический вопрос: где расположится президент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т этого выбора зависит не только удобство работы нового лидера, но и символические сигналы, которые он подаст обществу - разрыв с прошлым или ставка на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На повестке четыре варианта: сохранить резиденцию в Ёнсане, вернуться в Чхонвадэ, перене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ю в Кванхвамун или решиться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шаг - переезд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город Сечжон.

### Тень Ёнсана

Самым простым решение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оставить офис президента в районе Ёнсан - в комплексе бывше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в Сеуле. Там обосновался Юн Сок Ёль, когда в 2022 году принял неожи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окинуть традиционный президентский комплекс Чхонвадэ. Финансово-это самый удобный вариант: здание уже оборудовано, перенос нового офиса стоил бы миллиарды вон.

Однако история внесла свои коррективы. Именно здесь 3 декабря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введен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для многих это здание теперь символизирует авторитарный поворот, завершившийся импичментом. Против сохранения резиденции в Ёнсане выступают не только оппозиционные политики, но и широкие сло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лох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проблемы с безопасностью, прослушкой и общим имиджем - всё это делает вариант с Ёнсаном мало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 "Голубой дом" Чхонвадэ: назад к истокам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ым сценарием на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ыглядит возвращение в Чхонвадэ - историческую резиденцию президентов РК, служившую таковой более 70 лет. Здание, которое в переводе означает "Голубой дом", не утратило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символической значимости, а после импичмента количество его посетителей утроилось. Люди едут, как будто прощаются, но теперь все чаще - с надеждой на его возвращени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истему.

Есть, впрочем, и проблемы: за два года здание стало туристическим объектом, и потребуется время и ресурсы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нутренню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Однако большинство специалистов считают это выполнимым за считанные недели. Главное - есть запрос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и со стороны общества, и со стороны политиков.

### Кванхвамун: идея, не прошедшая проверку

Размещение офиса в Кванхвамуне, в центре Сеула - идея, поднимавшаяся как при Мун Чжэ Ине, так и

при Юне. Теоретически это позволило бы президенту находиться ближе к министерствам, работать "в гуще народа" и укрепить горизонтальные связи власти. Но на практике - плотная застройка, отсутствие защищенного периметра и сложности с безопасностью остановили реализацию этой идеи. Юн Сок Ёль отказался от нее уже через 10 дней после инаугурации. Эксперты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же говорят очень категорично: гарантирова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том районе физически нельзя.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Сечжон - вызов, но и шанс

А вот предложение о переезде в город Сечжон - это не просто идея, а потенциально новая глава в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правления. Сечжон расположен примерно в 110 км к югу от Сеула, эт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где уже размещены десятки министерств. Переезд туда позволил бы не только децентрализовать власть, но и снять часть проблем столичной гиперконцентрации: трафик, рост цен на жилье, перекосы в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ов.

Однако здесь все упирается в закон. В 2004 году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признал, что статус Сеула как столицы зафиксирован в "обычной Конституции", и без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изменений перенести туда президентскую резиденцию невозможно. Значит, впереди - сложный, длительный и, возможно, болезненный процесс.

(Окончание на странице 5)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еул выразил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в связи со смертью Папы Франциска

21 апреля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Хан Док Су выразил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в связи со смертью Папы Франциска, отдав дань уважения любви и солидарности, которые он проявил к человечеству. Настоятель Римско-католической церкви скончался в пасхальный понедельник в возрасте 88 лет в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и в Ватика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народ РК разделяют глубокую скорбь католического мира и выражают искренню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памяти Папы», - говорится в письме, направленном на им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ретаря Ватикана кардинала Пьетро Паролина. В своём послании Хан Док Су подчеркнул: «Папа Франциск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своей жизни передавал миру послание любви и солидарности, утверждая, что мы все - братья и сёстры. Он жил в духе мира и примирения, посвящая себя служению бедным и обездоленным». Хан Док Су напомнил, что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в РК в 2014 году Его Святейшество молился за ми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 на закрытии Всемирного дня молодёжи 2023 года в Лиссабоне он объявил Сеул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следующего форума в 2027 году, тем самым признав РК важным центром глобального мира. «Да упокоится благородная душа Папы в мире и вечном покое в объятиях Иисуса Христа», - говорится в послании Хан Док Су. «Я глубоко опечален кончиной Папы Франциска и глубоко ценю его усилия по достижению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написал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в Facebook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У Вон Сик. «Я выражаю свои глубочайш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Я желаю Папе Франциску вечного мира с Богом», - написал бывший лидер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Квон Ён Сэ вспомнил образцовые действия понтифика по содействию миру во всём мире.

## Состоялось второе заседание уголовного суда над Юн Сок Ёлем

21 апреля состоялось второе заседание уголовного суда над быв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РК Юн Сок Ёлем, который обвиняетс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Подсудимый вошёл в зал суда в 9:57, где его ожид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МИ. Им была впервые предоставл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извести фото- и видеосъёмку начала слушаний. После этого журналистов попросили покинуть зал. Разрешение на съёмку было дано с учёто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интереса к судебному процессу. В качестве свидетелей обвинения в суд были повторно вызваны командир первой роты охраны Командования обороны столицы Чо Сон Хён и командир первого батальона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Командования специальных операций Ким Хён Ги.

## Китай против сделок в ущерб его интересам

«Китай решительно выступает против того, чтобы любящая сторона заключала сделки в ущерб его интересам. Если это произойдёт, Китай никогда с этим не смирится и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решительные контрмеры».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коммерции КНР,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1 апреля на сайте ведомства. Оно стало ответом на планы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спользовать переговоры о тарифах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для давления на них с целью ограничения их отношений с Китаем. Все члены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кажутся проигравшими, если в глобальной торговле будет преобладать гегемонизм и политика запугивания. «Никто не может быть застрахован от последствий односторонних действий и протекционизма». Пекин готов укреплять солидарность и координацию со всеми сторонами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одностороннему запугиванию»,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 Хан Док Су: Цель РК – войти в тройку мировых лидеров по ИИ

Вхождение РК в первую тройку ведущих держав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является «целью, которую необходимо реализовать». Об этом заяв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Хан Док Су, выступая 21 апреля на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Дня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нтеграция ИИ с перед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станет движущей силой инноваций во всех отраслях и обеспечит основу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в будущем», - отметил о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на развитие сектора ИИ 1 трлн 800 млрд вон (1 млрд 250 млн долларов) в рамках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23 год, РК занимала девято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числу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ИИ (около 21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 12-е - по количеству научных публикаций за последние шесть лет (примерно 14 тысяч статей). Мир уже вступил в эпоху острой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за лидерство в сфере передовых научных и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К 2030 году РК стремится войти в тройку мировых лидеров наряду с США и Китаем, - отметил Хан Док Су.

RKI

##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 Кан Семён Васильевич (Тхядун)



С.В. Кан г. Кизляр, Дагестанская АССР 1956 г.

Родился 17 августа 1905 г. в д. Таванен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 В юном возрасте сражался на фронтах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начале 1920-х гг. направлен на учебу в полковую школу КВЖД. В 1929 г.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на КВЖД.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После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поступил на автодорожный факультет Казанского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но, проучившись год, вернулся в Приморье.

В 1937 арестован органами НКВД, однако вскоре был отпущен, т.к. его следователем оказался бывший подчиненный по событиям на КВЖД.

Осенью 1937 г. депортирован с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о время депортации у С.В. Кана родилась дочь; он с семьей был снят с поезда и поселен в г. Бодайбо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зван в ряды РККА в 1941 г. С учетом боевого прошлого был направлен на срочные курсы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им. М.В. Фрунзе. Участник парада 7 ноября 1941 г.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в Москве.

Во время битвы на Курской дуге был тяжело ранен, после лечения демобилизован 92 в звании подполковник. Войну окончил инвалидом 1-й группы.

После войны работал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экспедиции по добыче ценных руд, работником аппарата обкома КПСС в Якутске. В 1957 г. переехал в г. Троицкое Чечено-Ингушской АССР, позже — в г. Моздок Северо-Осетинской АССР.

Умер в 1990 г. Родственники: жена — Вера Васильевна.

Литература:

1. Цой А. Советские воины // Корё ильбо. 2007. 30 нояб.

2. Искренний, справедливый, добрый //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2007. No 8.

## Искренний, добрый, справедливый

Немногим корейцам в истории СССР довелось воевать. Но был человек, чья жизнь вместила две войны, тяготы депортации, боевую славу. Звали его Семён Васильевич Кан (Тхядун).

Родился он в обычной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е 17 августа 1905 года в деревне Таванен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Жили небогато, с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будучи старшим сыном, он познал тяготы жизни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близких людей.

Войн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стала его еще в юном возрасте, но он пошел на фронт и отважно воевал. В начале 20-х годов Семён Кан был направлен на учебу в полковую школу и затем,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маршала Буденного,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Был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Бое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и другими наградами. Вместе с ним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к боевой награде и его сослуживец-пулеметчик Алексей Тен.

После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поступил на автодорожный факультет

Казанского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но, проучившись год, был вынужден вернуться в родные края. В 1937 году началась массовая депортация корейцев, затронувшая и его семью. Всех погрузили в эшелоны и отправили в Узбекистан. По дороге у Семёна Васильевича родилась дочь Клавдия. Их сняли с поезда. Так они оказались в городе Бодайбо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Когда нача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его мобилизовали в армию. С учетом боевого прошлого он был направлен на срочные курсы в военную академию им. Фрунзе. Сразу после парада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7 ноября ушел на поля сражения. На Курской дуге был тяжело ранен, врачи выхаживали его почти год. Это было последнее сражение в военной карьере Семёна Васильевича. Войну он закончил в звании подполковника, был награжден медалями и орденами.

После лечения с семьей переехал на север, работал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экспедиции по



С.В. Кан (слева) с сослуживцем

добыче ценных руд. Был ответственным работником аппарата обкома КПСС в Якутске, занимал другие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Ранения серьезно подорвали его здоровье, в 1957 году с семьей переехал на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Поселились в Троицком Чечено-Ингушской АССР, затем в Моздоке в Северной Осетии. К тому времени туда уже переселились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Казахстана. Семён Кан часто навещал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Нальчике, здесь же жил и

его боевой товарищ, пулеметчик Алексей Тен.

Закончил свой жизненный путь Семён Васильевич в 1990 году в возрасте 85 лет. Те, кто его знал и помнит, говорят о нем как о человеке искреннем, справедливым, добром. Несмотря на преклонные годы, перед кончиной, Семён Васильевич был бодр духом, и на его лице всегда сияла улыбка. Таким он и остался навсегда в памяти и сердцах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2007. No 8.**

(Из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авторы-составители Д.В.Шин, Б.Д.Пак, В.В.Цой)

## В Сеуле обсуждают, какую резиденцию выберет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4)

### Что думает народ?

Если раньше переме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из Чхонвадэ в Ёнсан вызывало скепсис и насмешки, то теперь, после череды политических потрясений, корейцы готовы к переменам - и даже их ждут. Мнения разделились: кто-то хочет возвращения к традициям, кто-то призывает к переезду в Сечжон как символу нового начала, но при этом мало кто хочет, чтобы лидер остался в Ёнсане.

"Я был бы разочарован, если бы Чхонвадэ закрыли. Это символ нашей истории", - сказал в беседе с местными СМИ житель города Кванчжу, приехавший на экскурсию с сыном. А вот другой посетитель признался: "Мне показалось, что Чхонвадэ слишком роскошный. Думаю, Сечжон - лучший выбор: скромнее, ближе к обычным людям".

### Итог: компромисс как путь вперед?

Как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разумным было бы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е решение: вернуться в Чхонвадэ в кратк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и начать системную подготовку к переезду в Сечжон в долгосрочной. Э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новый стар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сле кризиса, сохранив уважение к традициям, и в то же время дать стране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цель. Важно лишь, чтобы это решение не утонуло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баталиях и не стало очередной разменной монетой на выборах.

Корее пора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 не тольк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но 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 Новому президенту предстоит решить, станет ли он символом перемен или продолжением архитектурного хаос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Почти 2,5 тысячи участник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ья соберутся на чемпионате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Сахалин 6.0»

На этой неделе Сахалин прим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чемпионат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Сахалин 6.0».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нут талантливые дети и подростки со всей России и двух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 Узбекистана и Киргизии. О готовности региона к масштабн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в рамках засед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оложили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 Наш регион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яркого события —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увлечённых инженерным творчеством и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Это не просто соревнование, а важный шаг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будущего. Уверен, что участие в чемпионате вдохновит юных изобретателей на создание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способных изменить мир вокруг нас,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 6.0»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частвует в чемпионате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с 2020 года. Сегодня в эту дисциплину вовлечено 55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более 2 тысяч детей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чемпионат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к нам съедутся талантливые дети и школьники из 34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и двух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они будут состязаться в 12 дисциплинах,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сновной площадкой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ет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полигоном для испытания инженерных решений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Сборные команды регионов представят разработки дл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аграр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шестой год подряд. Это самый крупный в России по географии и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чемпионат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для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4 лет. Чемпионат входит в рекомендуемый перечен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и каждый, кто становится победителем и призером, подает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реестр «Талант и успех». Впервые с команд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решили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Сахалин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гд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наработками, обменяться опытом и побороться за главные призы — поездк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чемпионаты,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директор АНО Лаборатория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Инженеры будущего» Максим Турушев.

Призовой фонд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ставит более 10 млн рублей. Генеральным спонс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т российский энерго-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холдинг «Эн+». Участники поборются за шесть путёвок на профиль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турниры, четыре ноутбука, четыре 3D-принтера, четыре планшета и лазерный станок.

## На берег острова Шумшу доставили первую партию груза для создани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22 апреля на Шумшу выгрузили строительную технику для работ по планировке территории и дальнейшего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лонного пути. Работа на необитаемом курильском острове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мероприятиям в честь 80-летней годовщины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Ранее на Шумшу завершили гидролокацио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дна и береговой полосы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ого катера.

— Доставка грузов на Шумшу, где отсутствуют пирсы и причалы, — сложная и неординарная задача, которая выполняется пр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транса. Сегодн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судно доставило на необорудованный берег острова первую партию техник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а также дальнейшего завоза грузов к месту проведения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Напомним, что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 80-летию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на Шумшу будет создан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Ход работ находится на контроле вице-премьера — полпреда Юрия Трутнева.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исполнению поручения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озглавляет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ектам Сергей Новиков.

Открытие первого этап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Шумшу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18 августа. В этот день пройдет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участие в которой прим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Она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иуроченных к 80-летию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 с 1 июля на историческом месте развернется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в которо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активисты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Найденные поисковиками останки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будут с почестями перезахоронены, а оружие, снаряды и другие находки пополнят экспозицию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 Новый лечебный корпус открылся в Сахалинском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мотрел корпус, гд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второй этап медицин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и пообщался с медицинскими работниками и пациентами. Сахалинцы с тяжел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и травмами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здесь под круглосуточным наблюдени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мощь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и сахалинские бойцы после ранений на СВО.

В трехэтажном стационарном корпус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60 коек. Здесь разместили отде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пациентов с нарушениями функций центральной и периферической нервной системы, костно-мышечной системы, а также пациентов с сомат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Оборудована палата интенсивной терапии — здесь возможно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ей людей в тяжелых состояниях. Пациентов будут учи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ышать, глотать, есть.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здоровья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ели залы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ы, кабинеты эрготерапии, логопедии и психологии.

— Мы расширили возмож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для людей после инсультов и инфарктов, после тяжелых травм и операций по замене суставов. Теперь пациенты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комплексную реабилитацию в стенах од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 новом стационарном комплексе есть все условия, оборудование, специалисты,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восстанавливались и возвращались к привычной жизн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Южносахалинец Игорь перенес инсульт. У мужчины поразило правую сторону тела, есть проблемы с речью. Лечащий врач рассказал, что с пациентом занимается логопед. А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функций мышечной системы используется ПНФ — прогрессивная методика физиче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 Я замечаю положительную динамику. Спасибо! — сказал пациент.

Как поясни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Иветта Забелина, существует три этапа реабилитации. Первый — это ранняя реабилитация. Пациенты в тяжелых состояниях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еще в реанимационном отделении ил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сле оперативн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 профильных отделения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и. Это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ый этап, после которого начинает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функций организма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реабилитации.

— Раньше на Сахалине не был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корпуса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и второго этапа. Работали только небольшие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е отделения пр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 к примеру, при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е. Теперь у нас есть трехэтажный корпус на 60 коек, где пациенты круглосуточно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в нашем учреждении, непрерывность лечения и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реабилитации второго этапа мы будем плавно переводить пациента в первый корпус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На третьем этапе, когда человек окреп и встал на ноги, он продолжает получать помощь уже в дневном стационаре, — рассказала Иветта Забелина.

— Второй этап реабилитации очень важен. После стабилизации состояния, например, после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я сустава, надо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трабатывать действия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механики конечности. Протез должен стать для человека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ным по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и к родному органу, для этого нужна отработка различных навыков, — добавил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травматологии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врач с 25-летним стажем Алексей Ким.

Здание оснащено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 том числ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 для применения передовых методов реабилитации. В новом стационарном корпусе работают более 30 врачей. На лечении сегодня находятся 40 пациентов.

Отметим, чт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сегодня прорабатыв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ослеродов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в стенах новог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корпуса.

##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авиарейсы, новый фельдшер, ремонт бассей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жителям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На этой недел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ы-

вал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где проверил, как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осмотрел как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посетил филиал СахГУ... В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Охинский район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вел двухчасовую встречу с жителями. Главными темами стали качество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расселение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Охинцы начали разговор с губернатором с вопроса о перелетах между Охой и Хабаровском.

— Горизонт планирования очень узкий. Люди собираются в отпуск уже зимой, а в это время возможно купить билеты только на один рейс, — обратился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председатель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Никита Бибики.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аксим Жоголев сообщил, что до 1 мая в летнем расписании добавится еще один рейс Оха — Хабаровск. Откро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ланировать перелеты до конца сентября.

— У нас уже два года работает лист ожидания. Мы записываем туда всех, кому необходим билет на самолет или другой вид транспорта. Просто так поста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рейс мы не можем. Нужно, чтобы люди заявили о своей потребности, тогда мы принимаем решения. Каждому, кто в этом нуждается, мы можем помочь улететь в отпуск и вернуться обратно,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ольшой круг вопросов жителей северного района затронул медицину.

— Кто считает медицину недоступной? Выходите ко мне. Я специально приехал, чтобы разобраться в этой проблеме. Все ли могут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и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Все ли получают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Мы сейчас отработываем новый механизм, чтобы пациентам оперативно выдавали бесплатные препараты по рецептам. Хочу услышать от вас конкретные случаи, — обратился к охинцам губернатор.

Одна пациентк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второй месяц не может попасть на УЗИ. Главврач Охинской ЦРБ ответил, что уже завтра для женщины проведут необходим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Аппарат исправно работает, специалистов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сти у пациентки возникли из-за того, что она не смогла перенести запись на УЗИ, а проводник здоровья ей не помог.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назначить нового помощника по всем медицинским вопросам.

Пенсионерка из Восточного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когда в селе появится фельдшер.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дали современный ФАП, а постоян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нет. Сельчанам приходится ездить за 25 км в город. Вопрос уже решен — на этой неделе фельдшер приступит к работе.

Охинцы подняли также тему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Пенсионер из села Тунгор спросил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езда на юг Сахалина. Жител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тарше 55 лет и с северным стажем не менее 15 календарных лет имеют право на переселение в Анивский район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вартиры им предлагают в Троицком, Новотроицком и Новой деревне, которая относится к областному центру.

На встрече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обсудили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Любители спорта поблагодарили за новый хоккейный корт. Он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 Но у нас климат суровый. Можно ли крышу предусмотреть? Тогда дети смогут 4-5 месяцев тренироваться, а не пару месяцев, как сейчас, — обратился житель Охи.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региональ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у спорта найти решение, как укрыть хоккейный корт.

Охинцы попросили также закончить ремонт бассейна. Работы проводили поэтапно. Сначала сделали чашу, чтобы любители плавания могли комфортно тренировать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авершат капремонт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й и вентиляции.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встречи выразила желание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движению «Счастливые материнства».

— Я — бабушка со стажем. Услышала, что нужны няни-бабушки. Как ей стать? — спросила Наталья Ашурова.

— Мы разрабатываем цифровой сервис, где семьи,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няне н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или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будут оставлять заявки. Мы уже начали обучение первого потока нянь. Приглашаем вас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А если хотите официально стать бабушкой-няней, нужно пройти сертификацию. А после мы вас тоже внесем в региональный сервис,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озвучал вопрос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для северного района. Глава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Евгений Михлик рассказал о развитии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тепличный комплекс на 6 тысяч тонн, ч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северян свежими овощами.

Всего жител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озвучили более трех десятков вопросов. По ним даны поруч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и установлены контрольные сроки исполн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美 애틀랜타서 "성황리 폐막"

### 4천 990만 달러 규모 대미 수출계약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의 수천만 달러 美 진출 투자계약, 우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도 이어져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상경제권 구축' 의 공감대 형성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한 G2G 프로그램 등도 호평

#### (3면의 계속)

86건,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22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우리기업과 동포·현지 기업과의 MOU 체결도 이번 대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4월 18일 열린 스타트업 피칭대회에 참가한 우리 스타트업 S사는 미국 동포 투자기업과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의향서를 체결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연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23년 美 애너하임 대회 이후 두 번째로 미국에서 개최된 행사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 경제인, 국내 기업인 등 약 4천여명이 대회에 참가했으며, 대회의 핵심인 기업전시관에는 2만여명의 일반참관객이 방문하였다.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한상경제권으로의 도약'을 표방하고 한·미 양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켈리 레플러 미 중소기업청장이 개회식에 참석하여 2025년을 '한상경제권 원년'으로 선포하는 세리머니를 진행,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 한상경제권 구상: 동포기업인과 국내기업인을 '한상경제권'으로 묶어, 생산·소비·투자·인력 이동·공급망 구축이 촉진되도록 하여, 한상 경제권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활용

4월 18일 '한상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열린 오찬 포럼에서는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이목을 끌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확대 등 통상 압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한상 네트워크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연결하는 '한상경제권'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대회가 열린 미국 조지아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대미 투자 거점 중 하나로, 한·미 양국 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미국 주정부 간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도 함께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4.17. 개최된 G2G 포럼에는 우리측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 전라북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美측에서는 매릴랜드주, 아칸소주, 앨라배마주 등 상무부 장관들이 참석하여 양국 지역별 투자 유치 전략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양국 지방 정부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4월 20일 개최된 폐회식에서는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하고, 스타트업 경연대회 시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환송 오찬을 끝으로 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매일경제·MBN,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공동주최 및 주관기관들의 열정적인 준비와 헌신 덕분에 이번 대회를 한류 상품 중심으로 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한상경제권'으로 도약하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상들을 아우르는 글로벌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 양국 인사 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 안동시 열리는 '2025 KOREA BUSINESS EXPO', 256개 부스 조기 마감

### 월드옥타, 글로벌 네트워크로 해외 시장 진출 지원참가 기업 중 49%가 식음료 및 요식업, K-푸드와 K-뷰티 주목 목산불 피해 안동시 경제 회복과 사회적 가치 확산 기여

750만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박종범, 이하 월드옥타)가 주최하는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이하 KBEA)이 오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총 256개 부스가 모두 마감되며 성황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계획된 250개 부스는 지자체,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들의 높은 참여 열기로 조기에 마감되었으며, 지속적인 문의에 따라 현재 추가 부스 설치를 검토 중이다.

이번 KBEA에는 경상북도, 안동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빈 대회에 참가했던 기업들 등 총 240개 기업이 참가해 256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기 모집 마감은 국내 최초로 열리는 'KOREA BUSINESS EXPO'(KBE)의 상징성과 더불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기업들의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참가 기업 중에서는 식음료 및 요식업 관련 기업이 전체의 49%를 차지했으며, 리빙 및 뷰티 분야 기업도 19%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식품과 뷰티 산업은 K-푸드와 K-뷰티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과 맞물려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이번 KBEA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참가 기업 담당자는 "지난해 10월 월드옥타의 행사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거뒀다고 알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의 실질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고 전했다.

박종범 회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기업들의 간절함이 모인 결과"라며, "월드옥타는 단순한 전시회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의 우수한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KBE가 단발성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KBE는 지난해 빈 대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세계에 소개하는 글로벌 한국상품박람회로서 브랜드화를 시작했으며, 이번 안동 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다.

월드옥타는 회원 바이어는 물론 해외 각국의 현지 바이어들을 대거 초청하여 대회의 국제적 위상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참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 실시간 통역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안동대회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시의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로도 주목받고 있다. 월드옥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안동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경제와 공동체, 두 축을 함께 고려한 이번 엑스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로 주목받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 프로젝트 «Школа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регионы» старто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10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ов, выбранных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Школа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регион».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грамма подготовки реализуе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Тихоокеа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Сахалин - один из перспективных регионов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инновационных идей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цифровизации, внедрен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и лечебном процессах. Передо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в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област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но и район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около 30 специалистов управленческого звена - руководители медучреждений со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курс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Учебный цикл включает отработку по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боты практиче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цифров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управление правовыми рисками, бизнес-процессы, экономика и финансы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управление персоналом. Для обучающихся организованы лекции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модули в формате экскурсий по ведущим медицин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региона, где слушатели смогут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лучшим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практиками.

- Я представляю районное медучреждение. Удаленност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е должна влиять на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Для все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обязательно не тольк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ействующих стандартов, но и стремление развивать различ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сервисы, внедрять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Школа главных врачей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изучить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и лечебном процессах,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Сахалин-

ской меж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1 Елена Бабинец.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Минздрава России.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и методологом выступает Центральны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организации 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инздрава России (ЦНИИОИЗ).

- Проект «Школа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важен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кадрового резерва, системной подготовки управленцев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их образования и компетенций. Обучение в школе проходит по специаль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разработанно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твержденны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стандартом, и на основе модели компетенций управленца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Отметим, за 2 года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рошли около 800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62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чить свыше 1000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около 50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университетских кафедр по медицинс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В Охинском филиале университета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Охин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филиал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смотрел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ую базу, пообщался с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и студентами.

В этом году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учреждению исполняется 95 лет. В Охинском филиале сегодня обучаются более 300 ребят. Дипломы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60 человек. Большинство выпускников трудоустраиваются в «ННК-Сахалинморнефтегаз» и другие нефтегазовые компании.

-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есть нехватка кадров. К примеру,

ННК продолжает привозить сотрудников с материка. Нужно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дефицит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вал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Увеличивайте число студентов,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потребность в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ах. 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следить, как выпускники строят свою карьеру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из армии или получения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иректор Ох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Галина Хамидулина обратилась к губернатору с просьбой помочь им с открытием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ННК-класса.

- Мы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кабинет, подготовили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Приводили аргументы, потому что наши студенты 3-4 курсов на практике полноценно работают. Мы закрываем большой фронт работ, особенно летом в сезон отпусков. Но в ННК сменилось руководство, и вопрос с открытием класса застопорился, - рассказала он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и сказал, что лично переговорит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пании. Появле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класса позволит готовить кадры под запросы предприятия.

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сообщил, что Охинский филиал работает эффективно. Среди популяр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готовки – сооружение и эксплуатация газонефтепроводов и газонефтезаводов, разработка и эксплуатация нефтяных и газ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По программам профобучения здесь готовят электромонтеров, слесарей,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а также помощников бурильщика, операторов по добыче нефти и газа,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и ремонту скважин.

С 1 сентября откроются но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дготовки: пожар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дошко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электрические станции, сети и системы.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крышу и фасад в Охинском филиале. Как только будет подготовлен проект, приступят к работа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이 모 저 모

## (2면의 계속) Сахалинские дошкольники выявили сильнейших в "Эстафете юных чемпионов"

XV Спартакиа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ошко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0+)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эстафете с элементами испытаний ГТО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2 команд из 7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на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спорта.

Более 70 участников из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Анивы, Невельска, Холмска, Ноглик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лжны были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за наименьшее время и выполнить три прыжка в длину, 5 отжиманий, челночный бег и метания мяча в цель. Команда-победитель выявлялась по лучшему времени.

По итогам состязаний сильнейшими оказались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ого сада №55 "Веснушка"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расположились ребята из садика №19 "Аленушк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почетное третье место досталось детскому саду №7 "Улыбка" из Холмска.

Все юные атлеты получили медали участников соревнований и сладкие подарки.

## Сахалин 주민들, 며칠 새 사기꾼에게 약 천만 루블리 이체

Сахалин 지역 주민들이 지난 며칠 동안 전화 및 인터넷 사기꾼의 피해를 입어 총 약 천만 루블리를 잃었다. 사기꾼들은 두려움,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욕구를 이용해 잘 알려진 수법과 정교한 새로운 사기 수법을 사용해 피해를 입혔다.

러시아 내무부 сахалин 내무국 프레센터에 따르면 56세의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여주민이 가장 큰 금액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을 "로스핀 모니터링(러시아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고, укра라이나로 자금을 이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당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여성은 모든 돈을 '특별 계좌'로 이체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황한 그녀는 사기꾼들에게 543만천 루블리를 이체했고, 그 중 약 250만 루블리는 대출 금액이었다.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사기 행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홈스크에 거주하는 70세 노인도 "금융 서비스"의 허위 대표에게 피해를 입었다. 사기꾼은 이 연금 수급자에게 46만 루블리 상당의 대출 5건이 본인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발급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모든 현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은행에서 실제 대출을 받고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결과 46만 루블리의 손실을 입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 거주하는 67세의 또 다른 연금자는 '수도 시설 직원'의 속임수에 먼저 넘어가서 메시지로 받은 번호를 알렸다. 그런 다음 그는 '고스우슬루기' 정부포털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았고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사기범들은 남성을 설득하여 저축금을 "안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약 80만 루블리를 훔쳤다.

"수익성 있는 투자"라는 방식도 사용되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 거주하는 60세의 한 주민은 메신저에서 돈을 버는 데 전념하는 그룹을 발견하고 "큐레이터"의 안내에 따라 돈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한 달 동안 그는 사기꾼들에게 270만 루블리 이상을 송금했지만 당연히 '수익'이나 투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비슷한 수법으로 홈스크에 거주하는 58세의 한 주민은 가짜 투자 플랫폼 링크에 접속했다가 64만4천 루블리를 잃었다.

## Почти 10 млн рублей перевели сахалинцы мошенникам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стали жертвами телефонных и интер-

нет-мошенников, лишившис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коло 1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Аферисты использовали как уже известные, так и изощренные новые схемы обмана, играя на страхах, доверии к госорганам и желании быстро заработать.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мую крупную сумму потеряла 56-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й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представившийся сотрудником «Росфинмониторинга», и напугал проверкой и возможным уголовным делом якобы за переводы средств на Украину.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женщине предложили перевести все деньги на «специальный счет». Поддавшись панике, она перечислила мошенникам 5 431 000 рублей, из которых почти 2,5 миллиона она взяла в кредит.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отерпевшая знала о подобных схемах из СМИ, но в стрессовой ситуации не смогла распознать обман.

70-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Холмска стала жертвой лжепредставителя «финансовой службы». Мошенник убедил пенсионерку, что на ее имя незаконно оформлено пять кредитов на 46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защиты активов» ей велели перевести все наличные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а затем еще и взять реальный кредит в банке и также отправить деньги аферистам. Итог — потеря 460 тысяч рублей.

Еще один пенсионер, 67-летний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начала попался на уловку «сотрудника водоканала», которому назвал код из СМС. Затем ему позвонили якобы с «Госуслуг» и сообщили о попытках списания денег. Убедив мужчину перевести сбережения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мошенники похитили у него около 8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е обошлось и без «выгодных инвестиций». 60-летний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шел в мессенджере группу, посвященную заработку, 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уратора» начал переводить деньги. За месяц он отправил мошенникам более 2,7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о вывести «прибыль» или свои вложения, естественно, не смог.

По аналогичной схеме 58-летний житель Холмска, перейдя по ссылке на фейковую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латформу, лишился 644 тысяч рублей.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